

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관광 극대화를 위해 체류형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(생태관광-거문도, 백도, 금오도/휴양관광-여자만 힐링마을 조성)

□ 사업개요

- 위 치 : 금오도·안도·개도·거문도(생태관광), 여자만(휴양관광)
- 생태관광 사업
 - 금오도 생태휴양공간 조성('14. 7. ~ '14. 12.)
 - 5,753m², 캠핑장, 다목적실 등/1,000백만원(국비 400, 시비 600)
 - 안도 동고지 명품마을 조성('14. 7. ~ '18. 12.)
 - 환경개선, 소득기반, 탐방인프라 등/1,387백만원(국립공원 1,000, 시비 387)
 - 개도 생태탐방로 조성('14. 8. ~ '15. 7.)
 - 탐방로 6km, 전망데크, 안전시설 등/700백만원(국비 700)
 - 거문도 뱃노래길 명소화 사업('16. 1. ~ '16. 12.)
 - 포토존, 전망시설, 편의시설 등/400백만원(국비 200, 시비 200)
- 휴양관광 사업
 - 여자만 연안생태휴양마을 조성('16. 1. ~ '18. 12.)
 - 갯길, 생태마을, 복합관광시설 등/9,000백만원(국비 4,250, 시비 4,250, 민자 500)
 - 여자만 갯노을길 조성('16. 1. ~ '18. 12.)
 - 탐방로, 자전거길 주차장 전망타워, 편의시설 등/9,600백만원(국비 4,800, 시비 4,800)
- 사 업 비 : 22,087백만원(국비 11,350, 시비 10,237, 민자 500)
- 사업기간 : 2014. 7. ~ 2018. 12.

□ 추진계획

< 2014년 >

- 생태관광 사업
 - 금오도 생태휴양공간 조성
 - '14. 7. 8. ~ 12. 31. : 공사 착공 및 완공

- 안도 동고지 명품마을 조성
 - '14. 7. :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및 실무협의
 - '14. 8. : 제1회 추경예산 반영(시비 387백만원)
 - '14. 9. : '14년도 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착공
- 개도 생태 탐방로 조성
 - '14. 7. : 제1회 추경예산 반영(700백만원)
 - '14. 8. :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착공
- 휴양관광 사업
 - 여자만 연안생태 휴양마을 조성
 - '14. 7. : 제1회 추경예산 반영(122백만원)
 - '14. 9. : 기본 설계 용역 추진

< 2015년 이후 >

- 생태관광 사업
 - 안도 동고지 명품마을 조성
 - '15. 1. : '15년도 사업 계획수립 추진
 - 거문도 뱃노래길 명소화 사업
 - '15. 2. : '16년 국비(지특) 지원 요구 및 확보
- 휴양관광 사업
 - 여자만 연안생태 휴양마을 조성
 - '15. 2. :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
 - '15. 8. : 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
 - '15. 10. : 사업 착공
 - 여자만 갯노을길 조성
 - '15. 2. :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
 - '15. 8. : 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
 - '15. 10. : 사업 착공

□ 연도별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량	사업비							
		계 (총사업비)	기 투자액	2014 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 이후
계		22,087		1,987	4,800	6,500	6,100	2,700	
금오도 생태휴양공간 조성	5,753㎡, 캠핑장, 다목적실 등	1,000		1,000					
안도 동고지 명품마을 조성	환경개선, 소독기반, 탐방인프라 등	1,387		987	100	100	100	100	
개도 생태탐방로 조성	개도 생태탐방로 조성	700			700				
거문도 뱃노래길 명 소화 사업	포토존, 전망시설, 편의시설 등	400				400			
여자만 연안생태휴양 마을 조성	갯길, 생태미울, 복합 관광시설 등	9,000			2,000	3,000	3,000	1,000	
여자만 갯노을길 조성	탐방로, 자전거길, 주차장, 전망타워 등	9,600			2,000	3,000	3,000	1,600	

※ 재원별 : 22,087백만원 【국비 11,350, 시비 10,237, 기타(민자) 500】

□ 기대효과

- 지속적인 섬관광 활성화로 체류와 휴양형 해양관광도시 정착
- 갯벌과 낙조를 체험하는 새로운 생태체험 관광지로 발전

